

Ⅲ. 主要 經濟 懸案

1. 建設 産業 基本法 試案

- (背景) 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國內 建設 産業 競爭力을 키우기 위해 면허 제도, 施工 能力 評價 制度, 하도급 제도 등을 개선
- (內容) 建設業 範圍의 擴大, 都給 限度制 廢止, 工事 管理業 제도(CM) 도입, 發注者의 전문 공사 하도급 결정 인정 등
- (評價 및 示唆點) 건설업 범위 확대로 事業 多角化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 대형 건설업체들은 과거와 같은 都給 限度制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特化해야 하고 都給 施工보다는 CM, 설계, 감리, 개발형 사업 기획 등 보다 soft한 측면에 치중해야 할 것임

시장 개방을 앞두고 기존의 국내 건설 제도를 보다 경쟁적 구조로 만들 필요

○ 立法의 背景

- 올해말 외국 건설업체의 國內 支社 설립 허용, 97년 公共 建設 市場 開放을 계기로 외국 건설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이 눈앞에 다가와 국내 건설업 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로 떨어짐
 - 그동안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建設業 免許 開放을 통해 건설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競爭을 촉진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工種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 내용이 다르고 所管 部處도 分散되어 있어서 건설업법 체계가 복잡하고 일관성이 부족
 - 施工 能力 評價 制度도 해당 공사의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전년의 공사 금액이 크게 반영되는 都給 限度制에 의존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정밀한 능력 평가나 업체간 경쟁 촉진에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부실 방지 및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통상 대책 등에 있어 綜合的인 建設 産業 政策의 추진이 어려웠음
- 이에 따라 흩어져 있던 각 個別法을 綜合하여 건설 산업을 총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었고 올해 定期 國會에서 심의, 내년 후반부터 시행

○ 試案의 主要 內容

- 건설산업기본법은 建設業의 綜合化, 施工 能力의 精確한 평가, 市場 進入 自律, 先進 建設 制度 導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첫째, 건설업의 종합화를 위해서 토목, 건축 공사의 都給 施工만으로 규정했던 건설업의 範圍를 토목, 건축 공사의 도급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 관리, 유지 관리 등 엔지니어링 업무와 전기, 전기 통신, 소방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사와 개발형 자기 공사까지로 확대
 - 둘째, 기존의 施工 能力 評價 制度인 도급 한도액 제도는 전년 도급 금액이 수주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施工 能力을 평가하는 제도로서는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도급 한도액으로 工事 受注를 直接 規制하는 것은 폐지하고,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시공 능력 공시만 하기로 함
 - 셋째, 매년 1 회로 한정된 建設業 免許 발급 주기도 시장 접근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 隨時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변경했음
 - 넷째,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복합 공사 조사, 설계, 시공, 시공 관리, 감리 등 건설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建設 管理 業者에게 委託 할 수 있도록하여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공사 관리 제도(CM)를 도입함
 - 이외에 종전에는 전문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임의로 하도급을 선정한 뒤 15일 이내에 發注者에게 事後 通報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전문 공사의 하도급이라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工事 品質 管理上 필요한 경우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직접 하도급을 할 수 있게됨

기존의 건설 관련 업역별로 나누어 있던 장벽이나 면허 그리고 수주 제도 등 시장 진입 장벽들이 완화되어 경쟁이 심화

○ 評價 및 示唆點

- 이러한 제도적인 변경은 향후 外國 建設業體와 국

건설업 범위 확대
 대로 사업 다각
 화 촉진, 대형
 업체들은 시공
 중심에서 설계,
 감리, CM, 개발
 기획 등 보다
 soft한 분야로
 나아가

- 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前提下에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요인을 없애고 외국과의 摩擦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 건설 분야의 설계, 시공, 특수 공사 등 各業域에 따른 진입 障壁이나 도급 한도제 등에 따른 각 건설업체의 대기업 소속 여부나 업체 규모에 따른 장벽, 면허 장벽 등 각종 강벽이 제거되어 거의 無限 競爭的인 市場 構造로 나갈 것임
 - 특히 건설업 범위의 확대로 건설업체들의 EC化 (engineering construction)를 가속시킬 것이며, 기존의 시공 위주에서 開發型 事業까지로 사업의 다각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도급 한도제가 폐지되고 시공 능력 공시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受注 慣行이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임
 - 기존에는 토목, 건축 등 全分野 있어서 능력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도 大規模 工事を 受注하고 다음해에는 전해의 실적을 전제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향후에는 建設 分野別로 실적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야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각 건설업체들은 기존의 실적을 분석하여 가장 경쟁력이 강한 부문을 선정하여 特化해야 하고 技術 開發에 投資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변화들은 기존 건설업체들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都給 限度制에 의존하여 안주하여왔던 대형 건설업체들에게는 受注 擴大에 否定的인 영향을 미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음
 -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의 建設 事業의 綜合的인 운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공사 관리 업무 (CM)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시공 중심의 hard 측면에서 設計, 監理 등의 능력을 확충하고, 기획 개발 사업을 확대해 보다 soft한 건설 회사로 변신해야 할 것임 (김 선 덕)